

## ■ 편집후기(編輯後記)

◆ 이번 60집에는 음운론(1편)을 비롯하여 통사론(2편), 사회언어학(3편), 일본어교육(4편), 기타일본어학(1편)에 이르기까지 총 11편의 다양한 일본어학 분야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지난 3월 발간된 <특별기획 : 일본어학의 분야별 최근 2년간 연구 현황과 전망>에서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이번 호에도 사회언어학과 일본어교육 분야의 논문편수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번 60호에도 옥고를 투고해주시고 심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무사히 학술지를 발간하는데 수고해주신 편집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다양한 분야의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李)

◆ 이번 60집은 담당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내외 일정이 겹치기도 하여 많은 분께 민폐를 끼치고 도움을 받고 하였다. 새삼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 시간들이었다. 투고로 귀중한 연구성과를 나누어주신 여러분, 바쁜 시간 할애해 심사해주신 여러분, 원고 모집과 발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辛)

◆ 이번 60집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테마의 논문들이 실려 있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하시는 연구자들을 통해 좋은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다. 60집이 많은 연구자분들께 읽혀지기 기대한다. 옥고를 투고해 주신 여러분, 심사위원 여러분, 편집 담당 실무 신은진 선생님, 편집위원회 여러분들 모두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金)

◆ 이번 60집은 분야별 다양한 논문이 등재되어 참고가 많이 되었다. 학기 중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속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진척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60집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60집이 나오기 위해 수고하신 연구자분들과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담당 편집이사님과 편집위원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鄭)